

서 평

김미지 | '외모 강박'의 오늘을 겨냥한 근대문화 탐사
-이영아, 『예쁜 여자 만들기』(푸른역사, 2011)

‘외모 강박’의 오늘을 겨냥한 근대문화 탐사

-이영아, 『예쁜 여자 만들기』(푸른역사, 2011)-

김미지 *

우리 시대 외모 담론에 던지는 하나의 도전

외모(外貌)가 ‘지상(至上)’의 가치를 접하다 못해 갖가지 병리적 현상을 낳는 광풍의 주역이 되고 있다는 데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한국은 자타공인의 ‘성형 공화국’, ‘성형 대국’으로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고, 외양을 가꾸고 바꾸기 위한 소비 산업의 규모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미 2008년 통계로 한국 사람들이 외모 산업에 투자하는 비용이 연간 10조에 달한다는 보고가 있었다.¹⁾ 물론 이런 추세는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등 아시아 각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심지어 키나 외모가 연봉이나 승진에도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실증’한 ‘조사 연구’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이니,²⁾ 이제 ‘외모 프리미엄’

* 서울대 기초교육원 강의교수

- 1) 국세청 통계에 의한 것으로 이 규모는 성형 시장, 다이어트 시장, 화장품 시장을 합한 수치이다.
- 2) 해외에서 이러한 연구 결과들이 토픽 감으로 심심찮게 들려오고, 『키는 권력이다』(니콜라 에르팡, 현실문화, 2008)라는 책도 나온 바 있다. 실제 한국에서도 이를 ‘실증’한 연구가 최근 나왔다.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 교수가 “30~40대 남성 근로자 1,548명의 표본을 추출해 키와 임금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분명히 ‘키 프리미엄’이 있었다는 것이다. 박기성·이인재, ‘한국 노동시장에서의 신장 프리미엄’, 『한국노동경제학회 발표 논문집』, 2011.3.22.

이라는 것은 단지 통념이나 심증의 차원이 아닌 근거 있는 ‘사실’로 공포되는 시대인 것이다. 성형을 통해서라도 외모를 바꾸고 환골탈태하고 싶어 하는 개인들의 열망뿐만 아니라, 이런 풍조에 편승하여 ‘외모 마케팅’에 은근히 열을 올리는 정치적 열망들도,³⁾ 이런 점에서 보면 이해 못 할 바도 아니다.

이영아의 『예쁜 여자 만들기』는 바로 이러한 ‘현재’에서 출발하여, 그 ‘현재’의 근원을 추적하고 파고들어간 책이다. 저자의 전작 『육체의 탄생』이 이땅에서 근대화와 함께 ‘몸’이 새로이 발견되고 관리되고 욕망의 대상이 되는 과정들을 몸(담론)에 새겨진 흔적들을 통해 살펴본다면, 이 책은 ‘여성의 몸’에 본격적으로 초점을 맞추어 여성의 몸이 근대 사회에서 어떻게 그려지고 말해졌는가를 보여준다. 여성의 몸은 근대적인 개조의 프로젝트와 가부장적 사회구조, 그리고 모성을 관리하는 국민국가라는 중층적인 지배 구조 하에서 표준화되고 평가되고 조작되었다는 것이 책을 관통하는 줄거리이다. 현재의 ‘외모’ 담론을 형성해 온 역사-사회적 문화-정치적 함의들이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기에, 이 책은 그러한 복잡한 맥락 안에 용감하게 뛰어 든 하나의 시도로서 여러 모로 평가해 볼 만하다.

우선 이 책은 어떤 이들에게는 그 자체로 이례적인 존재이자 사건이 될 수도 있다. 책의 부제인 ‘미인 강박의 문화사, 한국에서 미인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라는 문구에 나와 있듯이 이 책은 서지 분류학상 문화사 또는 풍속사(연구)에 속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터이지만, 책 제목 때문에 엉뚱하게 ‘미용, 다이어트 가이드북’ 또는 ‘여성 자기계발서’로 오인될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책을 리뷰한 어떤 인터넷 블로거는 “미용 관련 책인가 하고 헬스장 가서 자전거 탈 때 봐야지 했었는데...”라고 고백을 한 경우도 있었다.⁴⁾ ‘읽다 보니 그런 류의 책이 아니라

3) 조광희, '조국 교수의 '외모'와 진보의 가치', 『한겨레 후』, 2010.12.09. 이 글은 진보 언론들조차 외모를 지나치게 부각시키는 행태를 꼬집고 있다.

<http://hook.hani.co.kr/archives/17314>

는 것을 알았지만 재미있게 잘 읽었고 생각해 볼 계기도 되었다’는 것이 그 글의 요지였는데, 그 글에 달린 이웃의 댓글이 가관이었다. ‘○○님-블로그 주인-은 예뻐서 안 읽어도 됨’. 거기다 원글자인 블로거는 자신을 ‘미인’으로 분류해 준 댓글자에게 “감개무량하다”는 말로 고마움을 표한다. 블로거는 그나마 ‘미용 가이드’가 아니라는 데서 실망하고 잘못된 구입한 책을 던져버리지 않은 ‘양식’은 가지고 있었던 경우라 할 수 있는데, 이 책을 읽지 않았을 것이 분명한 저 댓글자는 이 책을 ‘못생긴 여자들이나 보는 미용 가이드’ 쪽으로 결국 치부하려 한 것이다. 댓글자의 의도를 좀 과장해서 해석하자면, 예쁜 여자가 되는 법을 소개한 책이건, 미인 열풍의 뿌리를 캐 들어간 책이건, 결국 마찬가지로 아니겠느냐는 것이다. 이 작은 에피소드는 미인, 외모를 둘러싼 우리들의 복잡한 속내와 뒤틀린 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이다. 그렇다면, 이 책이 지금 우리 사회에 하나의 ‘짱돌’을 던진 것이라면, 그 의미와 역할 그리고 그 한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전에 먼저 인간이라는 존재가 ‘아름다운 외모’를 진리 또는 가치로 전유해 온 방식들에 대해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자.

외모 담론의 여러 차원과 접근 방법들

외모지상주의, 외모에 따른 차별을 일컫는 ‘lookism’이라는 말이 만들어져 널리 쓰이고 세대 비판 혹은 사회 비판을 위해 동원되는 개념어로 자리를 잡은 지 오래지만, 예쁘고 멋진 외모를 추앙하고 동경하는 흐름에 체동이 걸린 적은 거의 없다. 오히려 훌륭한 외모는 ‘우월한 유전자’의 지표이며 우리의 ‘안구를 정화’시켜주는 숭고한 대상이다. ‘외모 경쟁력’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쓰이면서 외모 역시 다른 실력이나 자질들과 똑같이 취급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가치관까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능력이 노력과 훈련에 의해 획득되는 것을 일컬을진대 외모 역시 그러하다는 것

4) ‘예쁜 여자 만들기’/(리뷰), 2011.5.17. <http://opealia98.blog.me/120130136136>

이다. 이는 외모 고치기, 외모 바꾸기를 위한 온갖 노력들을 그리고 그에 소비되는 막대한 비용들을 정당화해주는 우리 시대 대표 담론이 되었다.

더구나 이제 아름다운 용모나 멋진 몸매라는 가치 혹은 이상은 여성들만을 억압하는 기제도 아니다. 외모 차별이나 외모 논란이 주로 여성의 몸과 관련되었던 과거에 비해 현재의 예쁜 외모 추종의 광풍은 남자라고 비켜갈 재간이 없다. 남자도 예뻐야 하고 가꿔야 하며 때로는 고쳐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선동의 외침이 어지럽다. 외모의 신분상승을 통해 행복과 성공을 거머쥌 수 있으리라는 환상을 부추김으로써 끝없는 소비의 구조로 빨려들게 만드는 자본의 블랙홀에 남녀차별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외모 가치'의 전면화와 이와 맞물린 외모의 산업화는 꾸준히 확장되고 변창하면서 소위 '대세'를 이루고 있다.

뉴스에 간간히 오르내리는 외모 차별의 사례들과 폐해들-기 때문에 혹은 외모 때문에 취업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라든지, 아예 외모를 채용 기준으로 삼는 업체들도 있다는 등의-은 잠시의 공분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분노한 뒤에도 여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지금보다 더' 나아지기 위해 운동하고 빼고 고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외모에 절망하고 집착하며 심지어 시름시름 앓기까지 하는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분명 '문제'라고 생각하면서도, 뭔가 그릇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자의식에도 불구하고, 그 열풍, 그 '대세'에서 좀처럼 헤어 나오지 못한다. 왜일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을까. 현재의 인간에게 이것이 과연 최선일까.

이 문제에 관해서는 확인된 몇 가지 접근 방법이 있다. 어찌면 애초에 인간은 그렇게 생겨먹은, 그렇게 살도록 진화해 온 '동물'인지도 모른다. 진화생물학은 아름답고 화려한 외모가 짝을 유혹하는 데 유리하며 따라서 번식에 있어 경쟁력을 가진다고 말한다. 결국 벌새의 황옥색 머리털, 수컷 공작의 꼬리깃털의 예처럼 동물의 세계에서 통용되는 이 진화의 원리가 인간 남녀의 짝짓기에도 적용된다고 본 것이다. 보드리야르가 소비 심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화장, 몸가꾸기 등의 기호들에 결국 이성을 확실하게 유혹하기 위한 심리가 내재되어 있다고 본 것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하면 경쟁의 정글에서 살벌하게 전쟁터로 내몰리는 지금의 인류에게 ‘외모 경쟁력주의’가 판치는 것도 그리 이상할 것이 없다. 종의 다양성이 고르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소위 우월한 유전자에게 모든 것이 집중되는 현 상태-집승의 상태는 어쩌면 인간 종의 위기 상황을 대변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육체의 상업화, 미모의 산업화는 이러한 위기 덕분에 증식을 거듭하며 그 위기를 부추겨 존재를 증명하는 자본의 대표적 성공 사례일 것이다.

반면 아름다운 외모를 미덕으로 여기고 이에 비상한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오랫동안 여성의 몸을 억압하는 기제로 작용했다는 데에 초점을 맞추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페미니즘의 견지에서 보자면 예쁜 외모와 몸 가꾸기를 여성에게 요구하는(강제하는) 것은 가부장제가 여성을 속박하는 논리이다. 따라서 가부장제의 억압에서 벗어나기 위해 또 그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가부장제의 미학을 전복하는 ‘반미학적’ 실천을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들도 나온다.⁵⁾ 외모를 꾸미기는 꾸미되 자각적으로 또 저항적이고 혁명적인 방식으로 꾸미자는 것이다. ‘아름다움’의 가치에 대해서는 페미니즘 내에서도 다양한 이견들이 있고, 여성의 미학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새로운 논리들이 개발되고 있는 중이다.

페미니즘에서 말하는 급진적인 실천을 실행하기는 부담스러운 보통의 여성들에게 더 솔깃하게 다가갈 수 있는 논리도 있다. 바로 ‘여성의 자기계발’을 논하는 담론이 말하는 전략이다. 식지 않는 자기계발서 열풍 속에서 ‘여성’을 타깃으로 하는 책들 역시 무수히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⁶⁾ 나름대로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다. 획일적이고 맹목적인 미의 표준이나 기호를 넘어서서 자신만의 미와 매력을 찾아야만 궁

5) 김주현, 『외모 꾸미기 미학과 페미니즘』, 책세상, 2009.

6) 여성 자기계발서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남성 중심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 더 독해지고 슈퍼우먼이 되라는 주문을 하는 쪽, 다른 하나는 슈퍼우먼 콤플렉스와 외모지상주의에 지친 여성들을 다독이며 ‘자기를 찾으라’고 주문하는 쪽이다.

극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주장을 설파하는 것이다. 가부장 사회를 전복시키지는 못하더라도 그 안에서 성공하고 싶다면-이 ‘성공’이란 결국 ‘살아남기’의 다른 표현이거나- 자기를 알고, 아끼고, 그래서 자신의 매력을 찾으라는 메시지이다. 예쁜 외모와 몸짱 신드롬에 지친 여성들을 위로하는 이러한 주장들이 무수히 많이 쏟아지는 것 역시 외모 강박 시대의 방증이기도 할 것이다. 그렇다면 『예쁜 여자 만들기』가 놓이는 지점은 어디쯤일까.

‘얇을’ 통한 현실 극복의 의지와 과제

『예쁜 여자 만들기』의 체제를 굳이 구분해 보자면 프롤로그-본문-에필로그의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프롤로그는 이 책의 기획 의도와 집필 목적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외모 강박에 시달리는 이 시대의 평범한 여성들에게 우리가 왜 이렇게 ‘불행하게’ 살게 되었는지 그 근원을 일러주고 나름의 주체적 대응을 모색할 수 있는 길을 열어보겠다는 저자의 포부가 담겨 있다. 본문이 끝나고 등장하는 에필로그는 이제 ‘얇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심리적 행동적 권고 내지는 선동(?)을 하는 부분으로 본문에서 드러내지 못했던 저자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있다.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만을 일단 두고 본다면 이 책은, 일종의 여성 억압의 역사를 들추어내고 과거로부터 지속되어 온 ‘그들’의 논리를 파헤침으로써 현재의 우리 모습이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는 위로를 건넨다는 점에서, 또 고통을 나누고 소통함으로써 불행감을 극복하고 ‘n개의 아름다움’을 찾는 새로운 길을 모색해 보자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페미니즘의 시각과 여성 자기계발론의 시각을 겸비하고 있다.

그러면 이 책의 알맹이이자 저자의 학구적인 노력이 응축된 산물인 본문은 어떠한가. 이 책의 미덕 가운데 하나는, 역시 한국 문학-문화를 진지하게 연구해 온 연구자답게 미시적인 접근과 거시적인 접근을 모두 놓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당대의 자료들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분류하는 작업은 연구자로서의 기본기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자료들을 어떻게 엮어내고 그것에 어떠한 해석과 맥락을 부여할 수 있는가는 연구자가 가진 역량 문제이기 때문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 책에서는 근대화와 더불어 여성의 외모가 새로이 주목받고 미의 기준이 바뀌게 된 원인을 근대 시각중심 문화의 확립과 긴밀하게 연결시키고(1부 1장), 의학 지식(몸에 관한 지식)과 몸에 대한 관점, 패션에 대한 인식이 하나의 연결고리로 묶여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미의 표준이 매체와 유행에 따라 또 ‘아름다움’에 대한 당대의 담론 구조에 발맞춰 어떻게 내면화되는지를 세밀하게 보여준다(1부 2장). 즉 여성의 몸에 썩워지게 된 각종 다기한 굴레들에는 근대적인 앎과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결합하면서 발생시킨 매우 복합적인 힘들의 구조가 얽혀있다는 일관된 논리이다.

또 하나의 미덕은 저자가 포괄하고 있는 자료의 범위에 관한 것이다. 당대의 신문 잡지 저서 등은 말할 것도 없고, 여성의 의복 논의와 위생 담론을 연결시키기 위해 김옥균의 <치도약론>을 들고 온다든지, 박제가의 <북학의>와 이덕무의 <청장관전서>를 들고 나와 조선 후기 지식인 사회의 복식관을 보여주는 등, 여성과 몸에 관한 다양한 담론을 소개하기 위해 유교 관련 저술과 근대 의학 지식, 한국 사상사를 넘나들고 있다. 저자의 전공분야인 문학 작품 역시 개화기에서 1920~30년대까지 두루 참고하고 있으며, 심지어 체육사, 양생사상, 질병의 역사, 가족 담론, 모성론, 사진 및 영화론까지 훑어내었다. 책의 체제와 볼륨은 일반 독자들을 위해 꽤 가볍게 설계되었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저자의 공력은 상당하다.

하지만 어떠한 의욕적인 역작이라도 그러하듯이 이 책에도 아쉬운 점 역시 없을 수 없다. 먼저 작은 아쉬움이라면 한국의 근대에 벌어진 이 일들을 아시아의 근대화, 서구화라는 좀 더 큰 시각에서 볼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점이다. 동양의 사고 구조와 사상 관념, 미의식 등이 변전하는 근대사의 큰 흐름은 한국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여러 부분에서 미에 관한 한 근대화를 서구화와 거의 동질적으로 취급하고

있는데, 이 서구의 충격이 동아시아에 어떠한 담론 질서의 변화를 가져왔는지, 미와 몸의 세계관이 그 과정에서 어떠한 내재적인 재편 과정을 거쳤는지도 비교해 볼 만할 것이다. 이는 아쉬움이기보다는 과제라고 하는 편이 적절해 보인다.

좀 더 큰 아쉬움은, 근대가 내포하는 가능성과 폭력성을 충분히 ‘얹’으로써 우리 스스로 새로운 주체의 길을 열자고 저자는 권유하고 있지만, 본문의 흐름은 근대 초기 여성들에게 스스로 설 자리를 많이 마련해 주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 사회에 몰아닥친 근대 프로젝트의 숙명 하에서 여성의 몸이 어떻게 시각적으로 응시되고(그려지고 찍히고 보여지고) 언어로써 폄평되고 요구받고 욕망되며 관리되었는지가 책 전체를 관통하는 논의의 초점이기에 여성들의 목소리가 들어설 자리가 애초에 비좁았으며, 이는 아마 저자도 인식했던 사실일 것이다. 이는 또 전적으로 당대의 공식적으로 공표된 기록 자료들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담론 분석이라는 방법론상의 문제이기도 할 것이다. 이 책이 문화사 기술에 충실한 순수한 학술서적으로 포즈를 잡았다면 이러한 지적은 별 의미가 없을 터이지만, 이 시대에 또 이 사회에 어떠한 구체적인 발언을 하고 싶어 했다는 점에서 보자면 그러하다. 따라서 이는 동료 연구자의 아카데미한 입장에서 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이 책이 타깃으로 하고 있는 ‘평범한 여성’ 독자로서의 아쉬움이라 할 것이다.

최근에 방한한 글로리아 스타이넵은 한 국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패션의 추종과 스타일의 추구를 구별하면서 ‘스타일을 지킨다는 건 나를 표현하는 일’이라고 말한 바 있다.⁷⁾ 돈의 논리에 모든 것이 녹아들고 빨려드는 이 시대에 패션과 스타일을 구분한다는 것이 말장난 같기도 하지만, 늘 ‘예쁜 페미니스트’라는 악명(?)을 달고 살아야 했던 그이기에 그녀 나름의 오랜 고민의 결론일 거라고 짐작된다. 『예쁜 여자 만들기』에서 말하듯이 미인이라고 특별히 더 행복한 것도 아니고, 예쁘든 예쁘지 않든 간

7) “세계 페미니즘 운동 ‘대모’ 글로리아 스타이넵”, 『중앙선데이』 인터뷰, 2011.6.12.

에 이 사회와 국가는 여성을 필요에 따라 마음대로 불러내고 소비한다(3부 4장). 이 사회에서 여자는 예쁜건 예쁘지 않건, 페미니스트건 아니건 다 살기 힘들다. 여성으로서 자기의 스타일을 창조함으로써 가부장 사회와 자본의 논리에 반기를 든 새로운 ‘미’의 추구자들을 만날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지 않을까.

독자로서 갖는 바람과는 별도로, 동시대 연구자로서 무엇보다 이 책이 가진 의미를 꼽는다면, 저자가 과거를 탐사하는 학구적인 고고학자의 자리에서 현재를 고민하는 인문학자로 한걸음 더 내딛었다는 점이다. 이 책은 지금 이 시대에 과거에 대한 앎이 왜 필요하고 중요한지 역설함과 동시에, 과거에 대한 앎을 바탕으로 현재의 우리를 위로 또는 극복하고자 하는 고뇌의 흔적을 새겨놓고 있다. 근대 문화(문학)와 인간의 몸을 망원경과 확대경, 그리고 현미경까지 동원해 오래 천착해 온 저자의 다음 프로젝트가 기대된다.

